

## 비전과 영적지도력

### 97 OMC 주제강의-10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처음 갔을 때는, 하루에 보통 12시간씩을 잤습니다. 자도 자도 끝이 없어요. 한 3달, 6달 동안 잠만 잔 것 같아요. 잠이 그렇게 부족했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잠을 그렇게 계속 자고 나니까 회복되기 시작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로렘나무 밑에 있었던 그런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때부터 영국에 있는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잡지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연예인 교회 할 무렵 제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창기 씨가 했던 잡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글세대의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잡지가 저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었어요. 예전에는 그 잡지가 다른 형태로 나왔죠. '샘이 깊은 물'로. 그 전에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잡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잡지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류 같아요. 잡지를 봐도 삼류고 신문을 봐도 삼류고.. 붙었다 하면 포스터고.. 부흥회 포스터가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렇게 한국 사회를 리드했고 학교 교육을 선두 했던 기독교가 어느새 삼류가 됐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제게 자극을 줬던 잡지가 이해평 씨의 '문학사상'이라는 잡지였어요. 문학을 가지고도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고 저런 매력을 줄 수 있구나.. 왜 기독교는 이런 잡지를 못 만들까? 그래서 연예인 교회 하던 시절에 제가 잡지를 하겠다 하고 잡지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교인들이 제가 잡지 만드는 걸 이해를 못해요.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선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곤 영국엘 갔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잡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3년동안. 그걸 가지고 84년에 귀국을 했어요. 아무리 정부 관계를 다 쭉셔봐도 잡지 허가는 100% 불가능해요. 그럴치만 저는 잡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그 때 아주 소중한 자료를 25파운드 주고 산 게 있어요. 그 잡지가 바로 '빛과 소금'의 영원한 베스트 셀러라고 하는 화보가 한 10년 나온 게 있는데 바로 그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잡지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out of date'돼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료를 그래서 얻은 거예요. 한국의 모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빛과 소금을 통하여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잡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겨 봐도 잡지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잡지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무렵에 제 마음에 또 무슨 확신이 있었냐하면 QT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얻었던 보물은 QT였어요. 그곳에 QT하는 사람들, QT자료들.. 그 비전은 미국에는 없어요. 영국은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서 QT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큐티 자료를 다 나눠줘야 되겠다.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3년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정부의 관계 책임잔데 잡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잡지를 주기 위해서 기독교만 줄 수 없대요. 카톨릭에 '생활 성서'라는 책 하나 주고 불교에 '금강'이라는 잡지를 주는 핑계를 만들어서 '빛과 소금'을 등록을 해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잡지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때 딱 한번 '빛과 소금'을 위하여 하나님이 잡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꿈, 비전은 막을 수가 없구나...불가능을 가능케 하는구나, ' 그런 것을 그 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두란노에 잡지 열 세 개 만듭니다. 어느 신문사도 어느 재벌도 잡지 열 세 개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 마음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매일 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 잡지는 한 달에 천만원씩 손해 봅니다. 손

해 보더라도 내 마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유년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 큐티. 초등학교도 1,2를 만들고, 중고등부 큐티도 두 개를 만들고, '생명의 삶'도 만들고.. 또 목사님들을 위한 큐티도 또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손해 보는 일이에요. 영어로 'LIVING LIFE' 큐티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어판으로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판. 중국판도 하나만 만들면 좋을 걸 '간자 중국판' 차이나에서 볼 수 있는 중국판. 대만에서 볼 수 있는 중국판. 그러고 러시아어 것도 만들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큐티를 시켜야 되겠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겠다. 지금은 SPANISH를 만들고 싶은 충동을 금할 길이 없어요.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양식을 번역해서 줘야 되겠다. 이게 꿈이더라구요. 하나님이 주신 꿈. 손해를 봐도 못 말리구요. 저희가 몇가지 두란노일 정리하면 금방 흑자나요. 그래도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이걸 해야 되니까 손해봐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내게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두란노는 고민하고 있어요. 잡지 몇개를 정리하라. 너무 적자가 많으니까. 스텝들은 다 결정해놓고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민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자. 매일매일 이 자료들을 만들어 주자. 아마 제가 믿기에는 곧 SPANISH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꿈! 그게 비전이예요.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건 비전이 아니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건 비전이 아니예요. 지을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 죽어도 하는 것. 그게 꿈이에요. 땅의 꿈이 아니예요. 하늘의 꿈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야망을 가졌다면 그런 꿈을 왜 꿨겠어요? 저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줄 아세요? 이 건물은 누군가 내 다음 사람이 쓸 거니까. 내가 쓸 건물이라면 난 부끄러워 했을 꺼예요. 그러나 이 건물은 누군가가 나의 다음 사람이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낌없이 만드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마치고 서울에 돌아올 때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갈 때가 있었어요. 눈 꽃핀 설경. 그 높은 산.. 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톱니바퀴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 산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 봤어요. 제 아내는 숨이 차서 끝까지 가기를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렇지만 얼음 빙산을 넘어서 정상 근방까지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 보니까 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설경이 한눈에 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융프라우 높은 계곡에 설경이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영국에서 존 스토틀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두란노처럼 만든게 'London Institute'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본 게 있으니까 만들어요. '난 서울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 그게 두란노예요. 존 스토틀이 만들었던 시티 한 복판에 'contemporary issue'라는 많은 전문인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저는 두란노를 만들었지만. 존 스토틀의 'london institute'를 보고 '오~ 이렇게 하는구나' 제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짐 그래함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보다 크기는 반밖에 안되죠. 조그만한 예배당이에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젊은이들이 아니예요. 50대 60대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지' 교회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를 이만큼 끌고 갔었던 것은 그 때 느꼈던.. 어쩌면 실물보다 제가 더 느꼈을지 몰라요. 실체론 안 그런데 제가 너무 감격해서 한 10배쯤 상상해서 그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예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사회자가 나와서 시편부터 먼저 선언을 해요. '다같이 목도합시다'가 없어요. 거기 오신분들은 이미 30분전에 꼭 들어차 있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 천정이 떠나가도록, 찬양을 드려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1시간 쯤 해요.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설교에 빠져 들어가요.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박수치고 춤을 추고 어느 날 성만찬 하는 걸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것은 예배였어요. 성만찬을 드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가 임재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내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냥 기절할 만큼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예배드리다 기절해 버리면 좋겠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4절을 부르는지 5절을 부르는지.. 저는 경배와 찬양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2시간 3시간.. 저는 하용인 선교사의 별명을 'stop하지 않는 공'이라 그래요. 계속 뛰어요. 밤을 꼬박꼬박 새요. 그런 걸 보면서 '찬양은 저렇게 하는거지..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이게 무슨 찬양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존 매커드를 만났어요. 저는 그 사람의 설교에 매혹이 됐어요. 존 매커드의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해부학.. 너무 좋아서 그냥 다 가져다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동의 안한 것은, 성령론에 관한 것만 하나 동의안하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난 그 분에게 성령님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윌로우 크릭에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와~ 참 좋다. 윌로우 크릭에 'church leadership conference'가 없었다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전 거기서 환상을 봤어요. 샤이닝 글로리 가서 '야~ 요거하고 두개를 딱 접목시키면 되겠다.' 그림이 그냥 내 앞에는 그냥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번 OMC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니 120%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연예인 교회 시절에 한 설교를 잊지 못해요. 제 아내가 다니던 신학교 학장 '제임스 닥터 스튜트'가 왔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에 한번도 온 적이 없는데 자기 졸업생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제 아내 하나 만나려고 방학 때문에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서울에 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호텔에서 안 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자겠대요. 그때 우리 결혼 초기였기 때문에 방 한 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편지를 쓰더라구요. 그게 큐티인 줄 몰랐어요. 난 편지 쓰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큐티를 하더라구요.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제 아내가 졸업했는데 아내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매일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는 강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제 목소리로 교리 설교만 들었지, 강해 설교를 듣고 자란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저희 연예인 교회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셨는데, 빛과 소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때 그 설교가 얼마나 제게 감동을 줬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강해 설교는 이렇게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구나. 그분이 그 때 제 사역을 전부 study하더라구요. 그는 2차 대전에 쓰던 것 같은 시계를 차고 구닥다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enjoy하더니 떠나던 날 공항에서 저와 제 아내를에게 마지막으로 그 멘토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의 사역을 다 봤다. 두 가지를 말하더라구요. 네 남편은 갖춰진 것보다 소문나게 많다. 그게 첫 번째 코멘트예요. 너무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빈 깡통 되기 쉽다. 지금 숨어라. 이게 첫 번째 그분의 충고였어요. 지금 당신 계속하면 내용 없는 사람 된다. 연예인 교회를 stop하라는 거예요. 두번째 네 나이의 영어를 너무 못한다. 지금 네 남편 영어를 가르쳐라 일을 stop해라 건강 나빠진다. 오래 못간다. 이렇게 일하다가는 오래 못간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간 부위를 다쳤어요. 이게 멘토십이더라구요.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은 5년 10년 만에 또 왔어요. 자꾸 우리의 사역을 점검 해 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교육받지 못했던, 우리 한국에서 지도받지 못했던 그런 참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그때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이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게 없으니까.. 비전, 'visible'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던 얘기는 '하늘을 보았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구원받은, 거듭난.. new world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다 새 세계를 본 사람들이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재만 보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만 있어요. 그러나 새 세계를 본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광활한 생각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드리고 싶고, 성만찬이란 것은 이렇게 하고 싶고, 설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가고 싶고.. 교인 그러면 이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내 마음에 강렬하게 있었어요. 이 그림이 있었어요. 화가는 그냥 마구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영감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붓을 들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가는 영감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펜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회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비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망과 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시작할 때 몇 가지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2가정이 시작했을 때 기도한 것은 '하나님. 2000명의 젊은이를 주십시오. 세계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책에서 요한 웨슬리가 '300명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읽다가 저는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2000명을 주십시오. 어느 날.. 2000명이 교회에 앉아 있더라구요, 10년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개꿈 말구요. 망상 말구요. 허황된 야망 말구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주신 그 꿈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자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여러분 제가 두란노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교회가면 두란노 그만두라 그러구요, 두란노 가면 교회 그만두라 그래요. 전 둘 다 그만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두 자식이니까.. 저는 두란노도 못 그만두구요. 교회도 그만 못뒤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꿈이니까. 교회는 'church'고 두란노는 'paralle church'에요. church와 parallel church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처음 한국 사회에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고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찌 출판합니까? 못합니다 교회는. 그건 두란노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할 수 있는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절묘하게 조화 시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OMC도 그래요. 교회만 했다면 이거 못해요. 월로우 크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월로우크릭 교회가 있고 월로우크릭 association이 있어요. 월로우크릭에 있어서 church leadership 세미나는 그 월로우크릭 association에서 해요. 이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두가지가 절묘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느냐.. 이게 제 목회자의 하나의 비전이예요. 꿈이에요. 10년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잠 못 이를 만큼, 밥을 못 먹을 만큼, 죽어도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환상, 그런 꿈, 그런 비전... 바로 이것이 비전이예요. 비전을 가진것 만큼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것 만큼 갑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도전 받았던 것은 나는 2000/10000비전을 했는데 (선교사 2000명 보내고, 사역자 10000명 보내는데)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새벽기도회 어느날 자기는 선교사를 2천 만명 보내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 '당신이 담임 목사다' 제가 그랬어요. 꿈이 큰사람이 담임 목사지요. 그래요. 가능한 게 무슨 꿈입니까?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꿈이에요? 불가능한 거..말도 안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킨거.. 꼭 해야 되는거.. 그래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거. 간단합니다.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되더라구요. 죽기 이상 더하겠어요? 저는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건강치 못한 것이 한번도 내 일을 하는데 방해돼 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인슐린 맞아요. 당뇨가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은 시간, 잠을 적게 자고. 뭐가 그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real이 보고 싶은 거예요.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 있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젠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하지만 뭐 영원히 하겠어요? 언젠가 그만 두겠죠. 살면 얼마나 살고, 일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황금기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시면 한 10년 되겠죠? 후회없이 살아야 돼요. 미치도록 살아야 돼요. 계산하고 살지 마세요. 따지고 살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그럼 합리적인 인간밖에 안돼요. 상식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세요. 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120명의.. 성령과 바람과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방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뛰쳐 나갔어요. 고생은 무섭지가 않아요. 고통은 무섭지 않아요. 병도 무섭지 않아요. 돈 없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동물과 같습니다. 동물은 꿈을 갖지 않아요. 사람에게에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전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비전을 그분은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결혼할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학교 다닐 틈도 없었어요. 그러나 3년동안 피곤에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줬어요. 그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꿈도 이렇게 잘 죽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요.. 죽는 데 고통없이 죽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고통 있게 죽으면 어떻습니까? 꼭 곱게 죽어야만 합니까? 곱게 죽으면 다행이고, 안 죽어도 상관 없는 거요. 예수님만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돈은 없고, 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구요. '하나님 내가 레미콘의 시멘트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갈아서 이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짓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돈 여기 있으니까, 그건 누가 못합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러면서도 그걸 기뻐하는 것.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어떤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예수님의 비전..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로 머릿 속에 꼭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꼭 차 있습니까? 전 우리 온누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 조건 가지고 만 오천명 오면 혁혁거려요. 지금 만명 오는데도 혁혁거려요. 우리교회 장로님 한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이 본당은 청년부 주고.. 우리 4만평 땅 사서 나갑시다' 그러더라구요. 4만평 간다고 또 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해답이 아니에요. 조금 숨은 돌리겠죠. 그래서 또 꿈이 생겼어요. 1년에 천 8백명씩 내보내자. 왜? 천 8백명이 등록하니까.. 3천 5백명이 문을 두드려서 새신자 과정을 거쳐 등록하신 분이 천 8백명입니다. 우리가 교인들 관리 잘 한다면 매해 천 8백명씩을 내보낼 수 있지 않느냐.. 집을 크게 짓기보다는 교인 양육 잘 해서 일년에 천 명, 천 5백명씩을 내보내면, 새로 교회 하나 만들어주면, 천 5백명짜리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건물 작다고 불평할 것 없다. 우리는 세계가 내꺼니까.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내꺼라고 믿습니다. 난 그러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내가 선교할 교회예요. 그들에게 한 달에 그럼 매년 천5백명이 과연 나갈까? 어떻게 나가게 할까? 아니 그래야 이게 만 오천명 maximum사이즈가 되면 계속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흐르면 왔다 시험들어 가고 그냥 귀찮아서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왜? 그릇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이 안 되면 못 떠나게 합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훈련이 된 자만이 떠나요. 세상을 변화시킬려면 이 방법 밖에 없구나.. 이제는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한 만명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순에 들어간 사람이 한 6천명.. 청년들 좀 있고.. 아직도 3분의 1정도는 적극적인 멤버들이 아니에요. 내가 할일이 있다. 우리 온누리에 찾아온 교인들은 90%이상까지 적극적인 교인으로 만들자. 헌신하는 교인 만들자. 순종하는 교인 만들자. 한 사람도 관리 안되는 교인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꿈이 지금 제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교파는 다를지 몰라도, 온누리와 같은 그런 꿈을 가진 동료 교회들을 많이 격려해 주고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옥한흠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형님!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들은 목사님이나 나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섬기십시다.' 이런 그런 부름 받은 교회들입니다. 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비전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지도자는 환경이 만들거나 노력해서 되어진다고보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지도자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분 한분은 목회자님 한분 한분은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내 꿈이 아니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지도력이란 지배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내 품안에 들어온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안 만났어도 그게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진 한 국가가 살아날 수 있고요,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그걸 아십시오. 절대 목회는 장로도 뭐도 교인도 아닙니다. 목사에요. 교회의 모든 책임은 나는 목사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든 우리 목사가 죽기로 결심하면 저는 안되는 게 없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된 지도자의 모델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가졌죠. 첫째 지도자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야망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저한테 '목사님, 세모꼴 되려면 세모꼴 되고, 네모꼴 되려면 네모꼴 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경험도 많으신 분이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는 제 멘토로 꼭듯이 모시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깐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왜요? 이분은 우리 온누리의 모든 인력을 가지고 중국을 가고 싶어하시거든요. 만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중국 곳곳에... 우리 젊은이들 보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가지고 가십시오. 중국에, 북한에, 온누리를 아예 이동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높기 때문에.. 목표가 높은 사람은 높이 안 갑니다. 낮아집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리를 원해요. 위치를 원해요. 비전 있는 사람은 쉽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탁 꺾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 대부분은 자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직분이 뭐 그리 중요해요?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 위치가 없어도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게 리더쉽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이 있었어요. 자신있는 자만이 발 씻어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자만이 낮아질 수 있어요. 실력 없으면 못 낮아져요. 실력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깎을 것 같은 일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꾼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시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시다.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시다. 희생...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시겠다 그러셨습시다. 소망이.. 이런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OMC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 부으시는 지도력, 지도자의 모든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올라오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고무적인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 모임에서 방법론을 배우러 왔다가 원리를 배우고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온누리교회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뭐하나 노하우 좀 배우러 왔대요. 그런데, 이번 OMC기간을 통해서 원리를,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그런 얘길 하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겸손과 섬김과 일꾼의 모습과 용기와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름 붓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목회는 변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일어서서서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